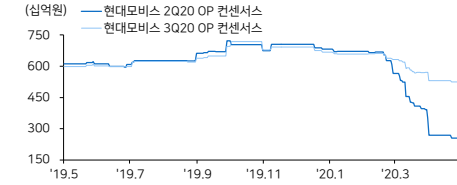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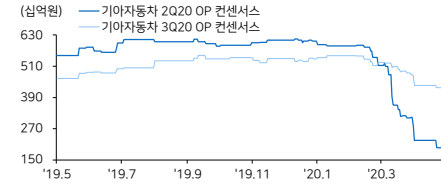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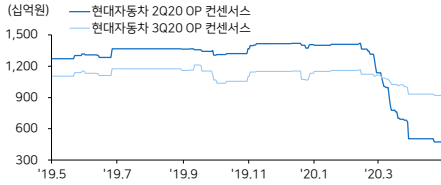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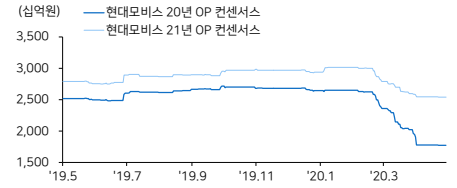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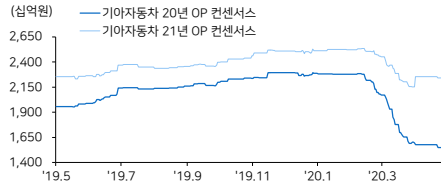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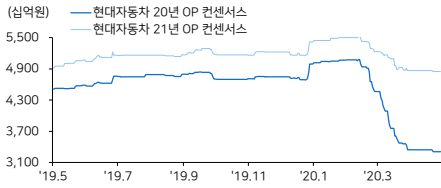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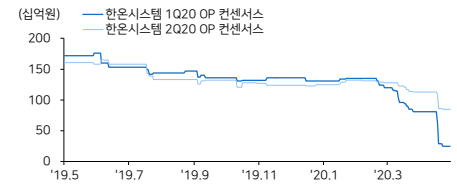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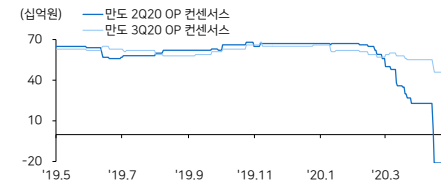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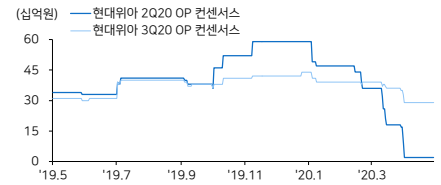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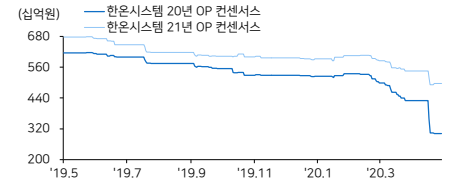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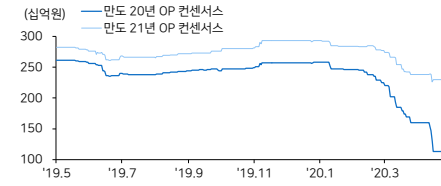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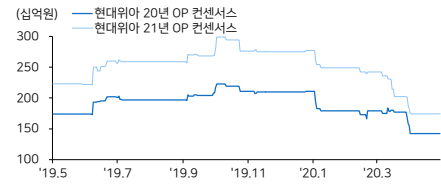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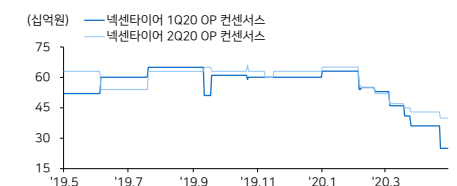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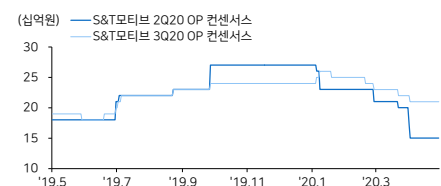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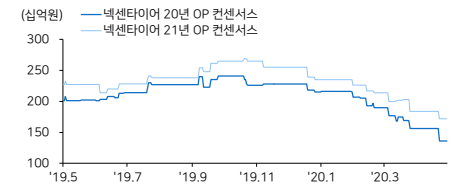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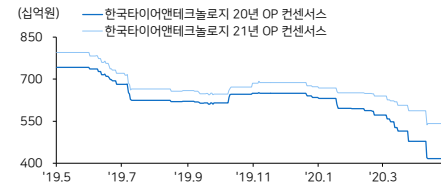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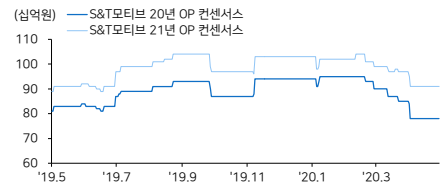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LG화학, 현대·기아차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수주 원대 규모 (동아닷컴)

LG화학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수주 원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 LG화학은 2021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양산 예정인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의 2차 공급사로 결정됨. <https://bit.ly/2yBex0m>

수출 막힌 현대·기아차 일부 공장 또 '셧다운' (서울신문)

현대·기아자동차 국내 공장이 또다시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를 맞게 됨.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도 해외 판매량이 줄어 임달이나지 않으면서 수출 불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된 것. <https://bit.ly/2B9zArV>

엔진 만드는 현대위아, 전기차 시대 두렵지 않은 이유 (아시아투데이)

현대·기아차 전체 엔진의 20%를 공급하고 있는 현대위아가 엔진 대신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경쟁력 전방이 있음. 전기차에 필수적인 '열관리 시스템' 등 차세대 먹거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서임. <https://bit.ly/3gocet>

프랑스 정부, '코로나 날' 빠진 자동차 산업에 11조원 투입 (조선비즈)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자국 자동차 산업에 약 10조8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번 대책은 EV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25년까지 EV·HEV 차량의 국내 생산량을 연 100만 대로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짐. <https://bit.ly/2ZMFxvt>

집에서 '급속 충전'...기아차 출퇴근 전용 전기차 내놓는다 (헤럴드경제)

기아자동차가 3시간 만에 완충되는 초소형 전기차(EV)를 유럽시장에 내놓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전기차 이용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의 하나로 풀이됨. <https://bit.ly/2XDsun0>

현대차 노조, 올해는 임금 대신 '울산 공장 일감 뺏기' 강제 (조선비즈)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이전과 달리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임금 인상 요구는 거의 하지 않지만 공장 일감 확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내놓고 있는 것. <https://bit.ly/2A9NAKV>

美 자동차업체 정상화 박차...GM·FCA 멕시코공장 가동 재개 (뉴시스)

자동차업체가 코로나19로 멈춰섰던 멕시코 공장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지 두달만. 주요 자동차업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에 부품 생산과 조립 공정을 두고 있음. <https://bit.ly/2XchNcl>

폭스바겐, 중국 JAC 모회사 지분 50%·국환하이테크 지분 27% 취득 (뉴시스)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JAC와 중국 대표 2차전지 기업 국환하이테크의 최대주주가 됨.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35억위안(약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 <https://bit.ly/2MaqBzZ>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